

이순신대교, 각종 사고로 ‘수난시대’

폭발 파편 ‘꽝’ · 컨테이너 ‘풍덩’…운전자 불안

폭염 · 잦은 도로파손에 포장도 보수작업 반복

국내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이순신대교가 최근 잇따르는 각종 사고로 ‘수난’을 겪고 있다.

12일 광양경찰서와 이순신대교 유지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52분쯤 이순신대교 중간 지점을 달리던 트레일러 차량에서 무게 3.2톤의 40피트 컨테이너(길이 12m, 폭 2.3m, 높이 2.4m)가 바다로 떨어졌다.

다행히 해상에 운행하는 선박은 없어 추가 피해는 없었으나 교량에 설치된 가로등이 훼손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화물차 운전자 A씨(65)가 강풍에도 컨테이너를 차량에 고정시키지 않고 주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이순신대교 주변에 초속 16m 정도의 강풍이 불고 있었고, 인근의 여수 고속도에서는 초속 17.8m의 순간 최대 풍속이 관측되기도 했다.

이순신대교는 지난 달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폭발사고의 애꿎은 희생양이 됐다.

이날 오후 1시14분쯤 광양제철소 폐로망간 야드에 있는 폐열발전기 시험레스트 중 두 번의 큰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올라 광양시민 모두가 크게 불안해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연구원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폭발 현장에서 수백미터를 날아온 직경 1m 정도의 알루미늄 파편이 이순신대교의 난간을 충격하고 대교 갓길에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지역시민단체는 “광양체철소는 사고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시설 정비와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면서 “최정우 회장은 광양시민들 앞에 나와 믿을 수 있는 대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폭염이 닥친 여름에는 이순신대교 일부 구간 들뜨고 갈라지는 현상도 발생했다.

지난 2018년 7월21일 오후 2시 10분쯤 여수에서 광양으로 가는 방향의 이순신대교 1km 지점의 1개 차선 도로가 부풀면서 갈라져 있는 것을 도로를 순찰하던 유지관리사무소 직원이 발견했다.

유지관리사무소는 즉각 차량 진입을 통제한 후 긴급 보수에 들어가 2시간 만인 오후 4시쯤 차량 통행을 정상화시켰다.

2014년 10월26일에는 이순신대교가 심하게 흔들리며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순신대교는 물결처듯 흔들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심한 흔들림으로 교량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들이 심한 울렁거림을 느꼈고, 일부 운전들은 차를 날려놓고 급하게 몸만 피신하는 일도 발생했다. 교량 흔들림 원인은 난간에 임시로 설치한 포장이 바람에 흔들려 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결론이 났다.

이순신대교는 잦은 도로 파손과 포장이 반복되는 현계를 가지고 있다. 대교의 하중 문제 때문에 포장 두께를 다른 교량의 8cm보다 얇은 5cm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강성을 높인 도로 포장 공법이 사용됐다.

그러나 패임현상(포트홀)이 발생하며 개통 1년 만에 전면 재포장을 실시해야 했고 이후에도 다양한 포장 공법으로 보수작업을 진행했지만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해 포장 파손과 들뜸이 계속 발생

하며 전남도의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산단집집로의 성격상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와 더불어 안타까운 주락 사고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 광양시 금호동과 여수시 묘도를 잇는 이순신대교는 2007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2013년 2월 개통됐다.

이순신대교는 지난 주경간장(주탑과 주탑 간의 거리)은 무려 1545m에 달해 국내 최장(最長)이고, 세계에서는 일본의 아카시대교(1991m)와 중국의 시호우먼교(1650m), 덴마크의 그레이트벨트교(1624m) 등에 이어 네 번째로 길다.

이순신대교의 주경간장 길이를 1545m로 설계한 것은 총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1545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여수=김도현 기자

‘문열고 난방’ 집중 단속… 과태료 최대 300만원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시행

정부가 문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를 상대로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대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주인 20~23일 사흘간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뉴스1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동 점검반을 구성해 이 기간 동안 개문 난방 영업을 집중 단속하며, 위반 업소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부는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1회), 200만원(2회), 250만원(3회), 300만원(4회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면 과태료 부과에 따른 업주의 빙발을 대비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맨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의 신청은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기로 했다.

● 단신 ●

나주 공장서 화학물질 유출…인명피해 없어

11일 오전 5시30분쯤 나주시 문평면 한 사무용품 제조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됐다.

이 사고로 아크릴아미트 25kg이 1층 공장 바닥에 새어나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3층에서 일을 하던 작업자들이 공장 내 가스감지기에서 경보음을 울리자 1층으로 내려와 화학물질이 유출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업체 자체 방재단이 흡착포 등을 이용해 아크릴아미드를 제거한 후 오전 9시12분쯤 소방당국과 환경부에 신고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날 현장 대응팀을 파견해 정확한 화학 물질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주차 트럭 들이받은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11일 오후 7시22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서 A씨(68)가 탄 오토바이가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주차된 트럭을 미처 발견 못해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낮에 흉기들고 은행 털던 40대 남성 구속 송치

흉기를 들고 대낮에 은행 털려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기소의견으로 지난 7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들어가 현금을 냉동으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범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추적해 당일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주식 선물옵션 투자 실패 후 9000만원 가량의 빚을 지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 의붓아들 친물에 담가 숨지게한 제모 체포

시기렵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는 어린 의붓아들을 친물에 넣어 숨지게 한 계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여주시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B군(9)을 친물을 담은 옥조에 속옷만 입힌 채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물을 들어간 뒤 몇 시간 후 B군은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등 저녁식사 준비를 방해해 벌을 줬다”고 진술했다. B군은 언어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의 아버지와 5년 정도 동거하다 지난해 혼인신고했으며 A씨에게는 친딸이 3명 있어 총 6명이 함께 거주했다.

사건 당시 집에는 A씨와 아이들만 있었고 세 딸은 학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과거에도 A씨가 B군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